일본, 한국산 섬유 반덤핑 조사 연장

한국 · 타이완산 순면과 자동차용 Polyester S ... 현 관세 6.0-13.5%

일본 정부가 2002년부터 한국과 타이완의 섬유기업에 취했던 반덤핑관세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현지 언론이 8월3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이완기업이 일본에 수출하는 순면과 자동차 매트용 폴리에스터(Polyester) Staple 섬유가 부당염가라는 이유로 양국기업에 6.0-13.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일본측은 부당염가가 개선됐는지를 조사한 뒤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 연장을 단행할 방침이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9/01>